

의 탁

1459.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했던 하루가 또 지납니다. 이 날을 사랑하며 지냈는지, 그리고 제게 무엇을 남겨 놓았는지,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지만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을 저울질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주님, 제 삶에 당신 사랑을 부어 주소서. 당신께 저의 빈손을 드리오니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그득 채우시어, 영혼들 위에 그리고 세상 모든 형제들 위에 당신의 은총이 쏟아지게 하소서.

이제 더 이상 저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당신만 생각하렵니다. 그러니 당신이 알아서 그들의 상처를 낫게 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 주소서.

저의 여정은 당신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이를 위해 제게 맡기신 것을, 당신께 돌려 드리고 싶어 제 마음이 급합니다. 저를 위해서는 아무 것도 남겨 두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여정은 앞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당신의 갈망들로 그 여정을 채워 주시고, 당신의 불로 정화시켜 주시며,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1460. 예, 그분께 맡겨 드리십시오. 가없는 영혼이여, 그분께

말기십시오. 그러면 그대 보다 그분이 훨씬 더 강력하게 그대를 방어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보호하여 주시도록 맡겨 드리십시오. 그러면 안전하게 길을 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는 순명과 수고와 침묵의 길이기 에 확실합니다. 또한 매일 죽어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대 앞에 걸림돌이라곤 없습니다. 그러니 두 눈을 감은 채 안심하고 그분께 말기십시오. 걱정하지 않고, 의탁하면 의탁할수록 더욱 안전할 것입니다. 아예 안전함 조차 구하지 않을 때 참으로 안전해 질것입니다..

1461. 주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저의 온 삶을 당신께 던집니다. 저는 당신께 대한 권리가 있고, 제 영혼은 무한한 갈증으로 당신을 찾습니다. 저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또 그 목마름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저는 절대자 앞에 열려 있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께 가오니 저를 기다려 주소서!

1462. "동이 틀 무렵 당신 앞에 나아가리다."(시편 5,5) 그리고 해질 녘에 아버지의 품에 안기리이다.

그분의 무한하심 속으로 사라지십시오.

1463. 아버지! 당신 사랑의 포구에 다다를 때까지 저의 작은 배를 저어 가십시오.

아버지! 저로 하여금 신뢰하게 해 주시고, 사물들에 대한 확신에서 제 눈이 멀게 해 주소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 밖에 다른 확신은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은 저의 아버지이시고 저는 당신의 딸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1464.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안심하십시오!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아무 걱정 할 것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손에 우리를 데려 가십니다. 영원하신 그 손에 안겨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요, 내일은 더 나을 것입니다... 훨씬 더 나을 거예요. 하루 하루가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내일은 좀 더 많은 생명, 사랑, 열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며 살아 가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일은 항상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결정적인 내일은 안식일, 하느님 안에 영원히 자리잡게 되는 신비가 될 것입니다. 그 날에 이르기까지 두려움, 번민, 고통! 무엇 보다는 심오한 기쁨, 하느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하느님의 기쁨! 사랑과 평화와 생명으로 가득찬 여정이 될것입니다.

1465. 하느님을 확신하는 것, 하느님을 믿는 것, 하느님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이 나하고는 어떻게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의 비천함보다 훨씬 더 큼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먼저 투성이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확신하십시오. 하느님을 온전히 확신하십시오.

1466.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그대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분은 전부이십니다.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분께서 그대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대의 작음을 인식하는 그 만큼, 그분의 빛과 사랑이 그대를 감싸 줄 것입니다.

1467. 그대를 포위하시도록 맡겨 드리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리고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세요...

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지 않습니까? 그대 영혼을 산산이 부서뜨리는 것조차도...

왜 모든 걱정을 제쳐 두고 하느님... 하느님..."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찾나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느님...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시고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당신 품에 뛰어 들어 제 삶을, 그리고 저의 삶보다 더욱 저의 것인 형제들의 삶을 당신께로 던집니다.

주님, 제가 주도권을 잡고 싶지 않으니 당신께서 잡으십시오.

1468. 주님, 당신의 손에 의지하고 싶습니다. 당신께서 손을 떼시지 않도록, 제 손을 대지 않으렵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눈을 찾사오니 당신 눈길의 불을, 당신 시선의 확고함을 제게 주소서.

제가 떨고 있음을, 당신은 보십니다. 제 작은 배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때때로 대양 속에 침몰할 것 같은 저를 보고 계십니다.

하느님... 하느님..., 쇠사슬로 저를 묶어 주소서.

1469. 산산조각이 난 채 초라하고 완전히 무능력한 저, 그러나 당신을 신뢰합니다. 주님, 저의 가난함이 두렵지 않사오니, 당신 자비가 더 깊으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가난함에 힘을 주소서. 저의 차가움에 열기를 놓으소서.

당신 원하시는 대로 제게 하소서.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1470. 주님, 당신 품에 고정된 채로 살고 싶습니다. 비록 제 발 밑에서 온 땅이 뒤흔들릴지라도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저를 도망치게 버려 두지 마십시오.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무한한 것에, 당신의 사랑 안에 정박하기를 원합니다.

1471. 땅바닥에 패어있는 구멍들과 구덩이들을 살펴 보십시오. 물이 밀려들면 삽시간에 모든 것이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 마음의 땅에 구덩이를 파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채우는 물은 하느님입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하느님의 물이여!

그분께서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1472. 깊은 신뢰, 깊은 겸손, 심오한 기쁨, 하느님께 대한 커다란 확신... 자신에 대한 불신, 이야말로 안전한 프로그램입니다.

1473. 폭풍이 밀어닥치는 바닷가에서, 주님은 우리를 지켜 보십니다. 우리의 작은 배가 아무 수확도 없이 애쓰는 것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십니다.

비록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해도, 주님은 거기 계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배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밤의 수고에 풍성한 수확을 주시고, 그 작은 배를 평화로 가득 채우십니다. 깨지지 않는 일치, 심오한 기쁨, 순수한 진리로 지탱하여 줍니다. 그분의 사랑이 모든 것을 감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474. 황혼은 언제나 새로운 여명의 빛을 약속 합니다... 바다 저편에 언제나 그분이 계십니다.

1475. 하느님의 신비로운 손이 그대의 삶과 갈망과 야망을 지탱해 주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그 손을 조배 하십시오!

유일하고 거룩하고, 부성애로 지극한 그 손으로 부터 도망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온순하게, 조바심하지 않고 변함없이 그분 안에 항구하게 정착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정말 안심하세요. 그분께서 당신을 지켜 주십니다.

그분께서 그대를 지켜주시고 사랑하고 성화시키시도록 맡겨 드리십시오. 그분의 위대함 속에서 그대의 미소함을 느끼십시오. 절대 그분을 실망시켜 드리지 마십시오.

1476. 하느님의 선하심...! 이것이 저의 굳센 확신이며, 감미로운 평화입니다.

싸움이 있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대를 지어내시고 만드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감싸 주시는 하느님의 든든한 손길이 그대를 보살피고, 마치 그대가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피조물인양 당신의 사랑과 관심을 온통 그대에게 쏟아 주시는데, 다른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1477. 싸우십시오.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영원토록 사랑의 증인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싸우십시오! 그분께서 그대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께서 그대 안에서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그 분은 승리자이십니다.

1478. 모두가 하느님의 소식이고, 아버지의 편지입니다. 이 모두가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전부를 요구합니다.

1479. 내 걸을 스쳐가는 피조물 모두가 하느님 현존의

불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루, 하루 당신 사랑의 위대한 비밀을 내게 가르쳐 주시는데, 나의 무능과 허무가 무슨 상관 있단 말입니까!

1480. 길에서 만나는 사소한 것들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자신 때문에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대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향해, 그대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향해 서둘러 나아가십시오.

다시 한 번 '예'라고 말씀 드리십시오. 느끼고 안 느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1481. 모든 것을 성반 위에 내려놓고 거기 머무르십시오. 그러나 이는 지상의 다른 모든 자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1482. 그분으로 꿰뚫어지도록 맡겨 드리십시오. 그분께서 그대를 찾고, 만나시도록 맡겨 드리십시오. 그분 마음대로 하시도록 맡겨 드리고 그분의 행동방식에 조건을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사마리아인, 병자 혹은 친구, 아니면 기타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유롭게 나타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그대를 만나러 오시도록 맡겨 드리십시오. 그분의 찾으심을 저지 하지 말고 그분의 사랑을 막지 마십시오. 그대를

향하여 다가 오시게 하고, 그대의 상처들을 차지하게 맡겨 드리십시오.

1483. 저항 없이 깃털을 뽑기는 작은 새처럼 되십시오

그분의 거룩한 손에 그대를 맡기고 아무 불평도 하지 마십시오. 그분께는 이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1484. 하느님의 부재는, 영원하신 그분 자비의 살아있는 현존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 뜻의 신비로운 길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길은 굳셈과 확고함, 사랑의 견고함을 가져다 줍니다.

1485. "성부여, 받아 주소서..."(성찬기도 제1양식) 제 가난한 허무를! 거룩하신 아버지! 제 작은 밀알, 드러나지 않는 일상의 작은 충실을 희생으로 바치오니... 받아주소서.

영원하신 아드님, 하느님의 말씀, 우리 맏형이시여! 당신의 희생에 저의 희생을 합하오니,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당신으로 만들어 주소서.

1486. 제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살립니다.
이것들이 뭐 그리 중요하단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일들입니다. 당신의 영광, 영혼들, 성교회의 심오한 신비!...
가난한 제 삶을 차지하시어 당신 원하실 대로 하십시오.

1487.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저 깊은 침묵 속에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분 얼굴을, 나의 가련한 허무가 하느님 얼굴의 다함
없는 신비를 보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1488. 사물들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존재하기를 그만 두었습니다.

오직 하느님... 오직 하느님... 오직 하느님!

보다 완전한 확신과 철저한 신뢰와 온전한 기쁨으로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오.

두 눈을 꼭 감고, 섬세한 사랑으로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며,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 드릴 때, 그 때에는
작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큰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물은 그 자체로 큰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미소합니다.

영원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1489. 하느님, 당신 사랑에 전 생애를 투신하는 것 보다 더 나은 삶의 방법을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거기, 그 사랑 안에 영원히 정착하렵니다.

1490. 하느님의 빛과 사랑 그리고 자기 비하 안에 그대를 정착시키고 거기에 자신을 묶어 놓으십시오. 아무 것도 원치 마십시오. 그대의 시선을 잃어버린 채, 자신에 대해 죽고 허무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대를 지탱해 주시고 안전한 길로 그대를 이끄시는 하느님의 손길에 잠기십시오. 온전히 맡겨 드리십시오.

1491. "예수님, 당신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립니다"

저의 모두를... 제 성향마저도! 이제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으렵니다. 오직 당신을 바라보고 미소 짓기를 원할 뿐입니다. 세계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모두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을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능력 외에 다른 것은 아무 것도 남겨 두지 않으렵니다.

1492. 성자의 살아 있는 모상이 되어, 성부의 무한함 속에서, 성령께서 묵묵히 일하시도록 당신을 맡겨 드리십시오.

1493. 하느님의 사랑이 불길처럼 그대 영혼 위에 내려 앉습니다. 용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예, 그분이 원하시는 데까지 깊이 들어가시어, 그대 존재 안에서 기꺼이 일하시도록 그대의 삶을 활짝 열어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서 저항을 받지 않는다면, 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답고, 심오하고, 빠른 성화의 길이 될 것입니다.

1494. 주님께서 그대 영혼 안에서, 당신 마음 대로 일하시도록 용감하게 맡겨 드리십시오. 그분께는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가지고 변덕스럽게 장난하신다 하더라도 그분께 항거할 수 없습니다.

1495. 충실... 의탁...! 그분의 손은 따스하며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 안에 동지를 틀고 지상 것들에 대해 알려 하지 마십시오.

1496. 주님, 저는 제 무능함마저 헤아릴 수 없는 당신 사랑의 심연 속에 잃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저의 가난과 비천함을 결정적으로 맡아 주십시오. 저는 제 두 눈을 꼭 감은 채 당신 사랑의 바다에 잠기렵니다. 용감하게 의탁하게 도와 주소서.

1497. 사랑으로 또 기쁘게 우리의 삶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요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분별력 있게 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무한한 고요이시고, 형제들의 구원의 신비를 이루시기 위해 그 고요함 안에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많은 평화와 사랑을 간직하십시오.

1498.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으로 이끄십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데로 이끌어 가시도록 그대를 맡겨 드리십시오. 언제나 사랑의 길이 될 것입니다.

1499. 예수님께서 그대를 갖고 노시며, 당신 마음대로 그대를 다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는 결코 그 품에서 도망쳐서는 안됩니다.

그분께서 그대를 꼭 껴안아 주시도록 맡겨 드리십시오.

1500. 두렵다고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그대 아버지이시고
신랑이요 친구이시며, 그대의 모든 것이 아닌가요!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언제나 그대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그대와 함께 계시며 어려운 것은 쉽게 하시고 거친 것을
평탄하게 하시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느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